

# 환경 재앙 황사

## 올 봄 광주·전남 8~9일간 덮친다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첫 황사경보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황사철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지역의 가뭄이 심하고 우리나라 봄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보여 황사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29일 중국 간쑤성 중서부와 네이멍구 서부에서 발생한 심한 황사는 찬 공기 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북부지방을 덮친 후 우리나라에 도달했다.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을 덮친 황사로 광주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1천330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으며, 흙산도 531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지난 2002년 황사특보 도입 이후 지난해 4월 광주에서 기록된 최고 수치(1343  $\mu\text{g}/\text{m}^3$ )에 거의 유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가 500여m에 불과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인 중국이나 몽골 등의 기온이 5월까지 평년보다 1~3도가량 높고 저기압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북서풍이 부는 날이 많

### 中 내륙 가뭄 심각·호남지역 봄 강수량 적어

### 발생빈도 평균보다 2~3일 많아…건강주의보

아직까지 올 봄 호남 지역의 황사 발생일수가 평균 5.9일보다 많은 8~9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호남 지역에서 1973년부터 2000년까지 황사의 평균 발생일수는 4.6일”이지만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9일, 최근 10년 동안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호남 지역은 황사 발생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1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사는 중국 내륙지역의 산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와 고온 조건으로 상태가 지속하면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난부지역은 라니나 현상으로 사상 최악의 폭설피해를 입었지만 발원

지의 60% 가량만 눈이 내렸고 남아지는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각하다. 중국 북부지방도 예년보다 훨씬 건조해 올 봄 황사 빈도가 높고 규모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황사 발원지에서 강한 저기압이 거대한 모래 폭풍을 자주 만들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도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북서풍이 자주 불고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층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황사 발생일수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황사는 중국 내륙의 공업지역을 지나며 아황산가스, 납, 알루미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 ■ 피해 막으려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 황사가 빨리 시작되고 정도도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황사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노출 차단과 청결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사람도 후두염 위험 = 중국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는 공업지역의 오염된 대기와 섞여 오염된 미세먼지를 물고온다. 모래먼지가 중국대륙을 거치면서, 아황산가스, 석영, 납, 알루미늄, 구리,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가득한 먼지덩어리가 된다.

### 물 많이 마시고 샤워 등 청결 유지

### 외출땐 황사 차단 마스크 꼭 착용

미세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키고 폐암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증 같은 심혈관질환과도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관지와 코, 목, 혀를 자극해 가려움증이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심해질 수 있다.

◇외출 자체하고 개인, 집안 청결로 피

예방 = 황사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시에는 선글라스나 황사 차단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해야 한다. 황사 속의 독성 물질은 피부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므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가능하면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눈, 코, 안의 점막은 더욱 취약하므로, 소금물로 씻어준다. 구강청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돼지고기의 기름기가 입과 목에 쌓인 먼지를 씻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돼지고기 섭취가 늘어난다. 그러나 돼지고기 섭취는 중금속을 제외로 배출시키지만 먼지를 배출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전문의들은 황사 예방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사 여드름’과 탈모 주의 = 황사 때 가장 생기기 쉬운 피부 트러블은 여드름이다. 환절기에는 피지 분비량이 늘어 흔히 쓰러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자잘한 여드름과 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 황사까지 가세해 미세먼지가 모공 속 피지와 뒤엉켜 만들어진 노폐물은 여드름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상태를 악화시킨다. /연합뉴스

“야생동물 출몰지역입니다”

국립공원 내비게이션 서비스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야생동물 출몰지역이니 주의하십시오.”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과 내비게이션 제조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주) 엔엔소프트(대표이사 박현열)는 28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국립공원 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차량을 이용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시설물 등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 지도 및 내비게이션 검색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비게이션 기능구현에 필요한 공원구역 지도와 각종 시설물 GPS정보 등 관련 정보 DB를 엔엔소프트에 제공한다.

엔엔소프트는 이를 바탕으로 출시예정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 국립공원 관련 정보를 제공, 탑재하고 지리정보포털사이트 (www.whereis.co.kr)에 다양한 국립공원 정보 및 콘텐츠를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내비게이션 사용자는 전체 등록차량의 25~30%인 약 350~400만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세계적 희귀종 사마귀게거미

### 소백산 국립공원서 발견

세계적 희귀종인 사마귀게거미(사진)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발견돼 전문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3~12월 소백산공원에서 자연자원 조사를 벌여 사마귀게거미와 가시오갈피나무·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9종과 천연기념물 7종 등 모두 3천618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과 일본 남부에 주로 분포하는 사마귀게거미는 암컷의 몸길이가 7~9mm에 불과한 만큼 작다.

1955년 암컷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아직 수컷은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제집 기록이 극히 드문 희귀종으로, 이번에 발견된 것도 암컷이다. 가슴이 대체로 둥글고 짱빛 몸색깔을 하고 있으며, 옆걸음질형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영산강운하 백지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향후 시민참여 운하대응 답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답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영산강운하 백지화 광주전남 시민행동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20여명은 지난달 29일 대운하 건설이 제기되고 있는 영산강일대(광주시 광산구 광신대교~나주시 구진포)를 들여 탐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운행개발 가능성,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수질과 수량의 변화, 관광·레저의 조건 등을 조사했다.

탐사활동에 참여한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영산강 운하에 배를 띄우면 강 양쪽이 과고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야

### “영산강 운하 개발보다 수질개선 우선”

### 광주·전남 시민단체, 광신대교~나주 구진포 탐사

하는데 이는 자연형 하천을 인공형으로 바꿔놓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수문 개폐 시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안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이 일대는 관광형 뱃길

로 만든다고 하지만 소수 일부 지역에만 문화재 등이 남아있지 대부분은 콘크리트나 산으로 둘러 쌓여있다”며 “육상교통을 통한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운하로 인한 관광 활성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영산강에 직접 들어가 수

질 상태 등을 조사하기도 했으며 영산강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영산강 운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고등학생 조국화(여·19)양은 “영산강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너무 개발만 앞세우는 것 같다”며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운하 백지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향후 시민참여 운하대응 답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답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매매 및 교환

전남 신도청앞 일반 상업지, 숙박, 위락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원) 절충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011-330-9365 (주인직)

### 솔로몬공인중개사

여수 엑스포전지역 (061)644-9644 휴 010-3999-2500 (물건 다량 보유)

여수시 물산을 우두리

분양면적 주거지역 평당: 60만~70만

여수시 물산을 우두리

분양면적 삼업지역 평당: 160만~250만원

여수시 물산을 우두리

지면적 2천평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1200평 평당매기: 20만원

여수시 물산을 우두리

지면적 2천평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1000평 평당매기: 15만원

여수시 물산을 물림리

면적 2천평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5000평 평당매기: 7만원

### 토지공사 분양택지

돌산택지지구, 엑스포행사장

위락시설지구, 숙박시설

시세보다싼 매물 다량보유

돌산지구 토지공사택지지구, 엑스포행사장

★매물 다량보유 상담환영★

###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차량) www.85858949.co.kr

###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1. 지역 : 광주시내 2. 건물 : 보증금 2억까지 가능, 가스보일러이며 대출이 적은 물건

###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1. 지역 : 영암 무인 환평군 내 2. 면적 : 3~4만평 3. 조건 : 차량전용이 가능한 밭이나 이산(신림 벌채 가능한 산) 4. 이용목적 : 밭 직을 재배 5. 가격 : 상호 협의 후 결정

### 상가 건물 급매

①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앞, 대지 304㎡(92평)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160.19㎡(351평) 임대보증금 1억8천만 원 월 450만원 매매가 8억원

②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대지 548㎡(166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1921㎡(581.3평) 보증금 2억 1000만원 월 1150만원 대출11억 매매가 16억 5천만원

### 수익성 좋은 원룸

①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인근, 대지 933㎡(282평) 건평 1299㎡(393평) 원룸30실 투룸 6실 주택 2실 보증금 4억 2800만 원 월 653만원 대출 4억원, 매매가 11억5천만원

②광산구 신기동 신축건물 대지 208㎡(63평) 건평 380㎡(115평) 원룸9 투룸3 매매가 4억 2천만원

###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동도서관사거리 혼자운영면판 2층)

### 건물

①주체동 5의 복원의원 매매 대지 10평 지상2층 주거지거울

②79평 일정 길이 호반도 두부동 서부 2층 대70P 건 287m² 보증금 500만원

③19평 9일정 텁정 20×10m 코너 전대 후면 대10P 건 2320P 보증금 930만원

④12평 7일정 10평부지 30×6m 코너 보증금 1억 500만원 포함

⑤13평 7일정 대10P 건 3000㎡ 보증금 2000만원 대2000㎡ 보증금 2000만원

⑥14평 13일정 13의 빙정 대40P 건 25×10m 보증금 2억 5천만원